

KIA 한준수 “공·수 다 잘하는 포수 되겠다”

부진 털고 새 시즌 준비...“수비·도루저지 보완에 집중”
“결혼·득녀로 책임감 커져...포스트 시즌 다시 서겠다”



‘완벽한 캠프’를 보낸 KIA 타이거즈의 한준수가 ‘책임감’을 더해 새 시즌을 맞는다. 한준수에게 올 시즌은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한 시간이었다. KIA

선수로서 2025시즌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한준수는 올 시즌 103경기에 나와 276타석을 소화하면서 0.225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 시즌 0.307의 타율을 찍으면서 ‘공격형 포수’의 모습을 보여준 것에 비하면 부족한 성적이다.

수비를 평가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이었다.

하지만 개인 한준수로 따지면 잊지 못할 2025년이다.

한준수는 오는 13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득녀를 하면서 아빠가 됐다. 인생의 새로운 순간을 연달아 맞으면서 한준수의 책임감은 더 커졌다.

한준수는 지난 11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 캠프를 하면서 2026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역대급 러닝 스케줄을 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지만 한준수는 “완벽한 캠프였다”고 돌아봤다. 마무리캠프는 많은 훈련량을 바탕으로 실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게 한준수의 설명이다.

한준수는 “마무리캠프부터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부족한 것을 훈련으로 채운다는 생각으로 했다. 힘들기는 했지만 즐겁게 하자는 마음으로 했다”며 “시즌 치르면서 느낀 부족한 부분, 약점을 많이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준비한 부분은 역시 수비다.

한준수는 “(포수는)수비가 중요한 포지션이다. 블로킹이면 블로킹, 송구면 송구 모든 부분에서 발전하려고 노력했다. 내년엔 보여줘야 하니까 수비를 많이 신경 썼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루 저지다. 1개의 아웃카운트를 잡는 게, 점수를 주느냐 아니냐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했다.

공격에서는 ‘내 것’을 만드는 게 목표다.

한준수는 “타격에서 올해 부진한 모습 보였으니까 타이밍 잡는 법, 히팅 포인트를 확실히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부진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동료들과 다시 또 큰 무대를 밟고 싶은 바람으로 한준수는 2026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한준수는 “시즌 끝나고 챔피언스필드에서 운동할 때 같이 포스트 시즌 이야기를 많이 했다. 부럽다는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잘 준비해서 다시 또 포스트 시즌 무대를 경험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준수는 신혼 여행지 대신 모교 동성고에서 가장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준수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신혼 여행은 다음에 가기로 했다. 와이프가 서운할 수도 있는데 대신 야구로 보답하겠다. 야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겨울에도 모교에서 훈련할 생각이다”며 “솔직히 가장으로서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내가 잘해야 가족이 행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정하게 매 경기 최선을 다겠다.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포수 한준수가 가장의 책임감으로 2026시즌 발전을 준비한다. 지난 11월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수비 훈련을 하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FC 유소년재단-명진택 협약...공동 마케팅 추진

광주FC 유소년재단이 ㈜명진택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마케팅·홍보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유소년재단은 지난 10일 광주축구전용구장 대표이사실에서 노동일 재단 이사장과 정도성 명진택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했다.

지역 내 운수·광고 기업인 명진택을 공식 스폰서로 지정한 유소년재단은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 마케팅·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유소년재단은 명진택이 운영·관리하는 10개 버스 노선의 외부 측면 광고를 제공받게 된다. 유소년재단은 버스 광고를 통해 유소년 축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미국, ‘괴물 투수’ 앞세워 WBC 설욕전 예고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우승을 노리는 미국 야구대표팀이 ‘막강 마운드’를 앞세워 지난 대회 준우승 설욕을 노린다.

MLB닷컴은 11일 마크 데로사 미국 대표팀 감독이 투수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전했다.

2023년 WBC 결승전 9회말 2사에서 마이크 트라웃(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게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일본에 우승을 내준 장면은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데로사 감독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WBC 미디어 행사에서 “다른 나라들은 최고의 투수들이 대회에 나서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그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MLB 최고의 투수 폴 스킨스(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있다.

타선은 이미 화려하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5년 계약을 맺은 카일 슈와버의 합류가 확정됐고, 거너 헨더슨(볼티모어 오리올스), 브라이스 투랑(밀워키 브루어스), 윌 스미스(다저스)도 참가를 알렸다.

마이클 힐 대표팀 단장은 “선수들이 성조기를 달고 싶어 하는 열망이 대단하다”며 “30인 로스터를 주리는 게 힘들 정도다. 규정만 아니면 50~60명을 뽑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PGA 뛰고 싶다” 옥태훈 Q스쿨 선전 다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입성을 노리는 옥태훈<사진>이 퀴리파잉(Q)스쿨 개막을 앞두고 선전을 다짐했다.

옥태훈은 11일(한국시간) PGA 투어를 통해 “올해 샷, 퍼터가 모두 잘 됐고 멘탈 트레이닝 결과도 좋았다”며 “올 한 해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이번 대회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내 꿈은 PGA 투어에서 뛰는 것”이라며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와 함께 쳐보고 싶다”고 말했다.

옥태훈은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3승을 거뒀고,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 자격으로 PGA Q스쿨 최종전 직행 자격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플로리



다주 폰테베데라비치 TPC 소그래스 다이스 벨리코스(파70·6850야드)와 소그래스CC(파70·7054야드)에서 열리고, 176명의 출전 선수 중 상위 5위 안에 들면 2026시즌 PGA 투어 출전 자격을 얻는다.

/연합뉴스



막아라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NBA 정규시즌 LA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경기에서 LA 디안드레 에이튼(5)이 샌안토니오 켈든 존슨(3)의 슛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